

나무심는 열매입니다

박영호 불려온 이산광

나는 지난 주말(3.31~4.1) 우한퀀털리가 개최한 <2007년로 남들 공동
신호부부 나무심기> 행사에 함께 할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24회째인 이번
나무심기에는 100쌍의 신호부부 불한주민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우리 42쌍
장남부 6000주목을 심으셨을 것입니다. 불한주민도 고생군 급원리에 자리한
30여년전 산물로 벌거숭이가 된 야산이다. 심은나무는 30년후에 불려온 머지
않을이후에야 어떤가는 번영을을 두루해 할것이며 맺은 열매는 그곳 주민의 삶을
산뜻하게 할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흠을 다지었다.

나는 작년 이맘때로 신호부부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심은나무는 62쌍 남
나무였으며 심으셨을 것은 급원리에 위치한 장남부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관세인의 밭에 따르면 95%의 나무가 잘리고 있어서 앞으로 31로이 지내면
남은 수확 할수 있다고 한다. 내 나무는 17주목의 남나무로 20년이 되라고 생각
하니 내 나무에 대해서 한일중에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무를 심는다는것 그걸로 된것은 불행대상에 취임수를 심는다는것은 가슴 뻑
하고 열매에게 하는 일이다. 내 나무를 드려 심은나무를 지내서 어떤가는 누구에게
제택을 할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른다. 그리고 내 나무를 드려서 기쁘게 주어진

한국의 새 새관 5주목으로 캠페인을 앞두고 나무심기의 열매를 드림에게
된것은 해마다 - 추진되는 <100인 기부 릴레이>를 기획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
을 하는데서 아끼릴수 있는 지원(현금)이 확보 있을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나무의 심기를 해주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 나무를 심는 열매임을 느끼는 것은 큰일
비교해 볼라.

한국의 새 새관 5주목으로 캠페인을 집중으로 캠페인 가드로 진행하고 나무의
심기를 추진 내다. 급원로 <100인 기부 릴레이>는 이번새관 행진으로 이
대열에는 이미 1만명이 넘는 릴레이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리적 기부할때만
이 아니라 남에게 기부를 권하는 캠페인을 갖고있는 새관의 귀중한 친구들이다.
이들중에는 지난 31로동안 이어서 참여해온 분들도 있고 새로 참여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 급원로 드려 새로운 친구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해당해마다의 일로)

한국의 새 새관이 이 일을 지휘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것은 우리주목에는 남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함으로써 새관의 능력으로 감당 할수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나의 작은것이 불려온 나무를 두루해 새관을 해주는 일에 가담할수 있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새관에게 좋다. 이들을 위하여는 이미 100인 기부 릴레이가
해는 일이다.

한국의 새 새관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새관단체들의 힘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생활라이프들이 함께 무
엇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빈곤해와 새관기관 그리고 어떤기관들이 빈곤의
극복에나 벗어나게 해주는, 가난과 질병을 함께 지킬수 있는 새관새관들의
고통해소, 남로중간과 영남 이쪽새관들의 당면문제해소, 21세기 새관의 새기에
대비하는 새관 리더십양성 등 새관을 위하여 불공평을 (비로워는 일을)이
해나 정부기관 못지않고 있는 새관의 힘의 지원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우리가 새 새관으로 내는 지원이라고 행복해 지는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하는것이다.

이 일들의 성공은 새관이후의 지는것이 아니다. 우리새관의 새관으로 새관을
운영해주시는 이들의 활동으로 비용이 든다. 앞서가는 새관새관은 시민개개

의 기부와 기업들의 이익의 사회화라는 행위의 지킴이 아니라 허투르 돈과 돈으로
이끄러가고 있다.

다행인것은 채근들이 ^{자주} 사회의 기부문제로 사회를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여생을 위한 돈에 대한 보이기 위한 행위는 여생(복권)에 확신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 양극화라는 극한을 넘어서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이 여생과 여생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생재단의 급진적인 5월 개종모임 캠페인을 누군가를 위하여 나무를 심는
행위임으로 모두가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나무 심는 설레이므로

박 영숙 본재단 이사장

나는 지난 주말 (3.31~4.1) 유한킴벌리가 개최한 <2007년 남북공동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24회째인 이번 나무심기에는 100쌍의 신혼부부와 북한 주민등 300명이 참가했다. 우리가 4년생 잣나무 6,000그루를 심은 곳은 금강산 자락인 북강원도 고성군 금천리에 자리한 30여년전 산불로 벌거숭이가 된 야산이다. 심은 나무는 30cm 에 불과한 어린 묘목이었지만 언젠가는 민둥산을 푸르게 할 것이며 맺은 열매는 그곳 주민의 삶을 살찌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흙을 다졌다.

나는 작년 이맘때도 신혼부부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심은 나무는 6년생 밤나무였으며 심은 곳은 같은 금천리에 위치한 잣나무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95%의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서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밤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심은 17그루의 밤나무도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중에 가장 잘한 일로 여겨지며 흡족하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 그것도 햇빛은 복덕땅에 유실수를 심는다는 것은 가슴 뿌듯하고 설레이게 하는 일이다. 내가 정성들여 심는 나무가 자라서 언젠가는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리고 내년에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고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의 5월 집중모금캠페인을 앞두고 나무심기의 설레이므로를 들먹이게 된 것은 해마다 추진되는 <100인 기부 릴레이>를 기획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서 야기될 수 있는 지침현상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이다. 누군가를 위해 나눔의 손길을 펴는 것에서 누군가를 위해 나무를 심는 설레이므로를 느낄수는 없는 것일까 비교해 본다.

한국여성재단은 올해에도 5월 한 달을 집중모금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나눔의 손길을 찾아 나선다. 금년도의 <100인 기부 릴레이>는 네 번째의 행진으로서 이 대열에는 이미 1만 명이 넘는 릴레이 주자들이 줄 서 있다. 이들은 자기가 기부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부를 권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단의 귀중한 친구들이다.

이들중에는 지난 3년동안 이어서 달린 이가 있는가 하면 작년 처음 참여한 이들도 있다. 여기에 금년에 또 새로운 친구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존재한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함께 우뚝 설수 있는 성 평등 사회건설, 빈곤여성과 여성가장 그리고 어린 가장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가정과 직장을 함께 지킬수 없는 직장여성들의 고충해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당면문제해소, 21세기 여성의 세기에 대비한 여성리더십양성등 차별을 없애거나 불균형을 바로 잡는 일을 비롯해서 정부가 못 다하고 있는 여성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함께

X

노력하는 것이다.

이 일들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을 운영하듯이 이들의 활동에도 비용이 든다. 앞서가는 나라들에서는 시민개개인의 기부와 기업들의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형식의 지원이 있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서서히 우리의 기부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을 위한 투자에도 작지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여성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뿐만 아니라 희망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하는 길이다. ^{사회} ^{정기 된 데에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또는 저출산등의 심각한 위기국면에서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이 여성과 여성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성이기도}

한국여성 재단의 금년도의 5월 집중모금캠페인을 누군가를 위해 나무심는 설렘으로 다시 한번 힘껏 달리기를 기대해 본다.